

하천의 機能 回復

홍길표*

물의 이용과 循環의 大過程에 있어서 排出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가 사용한 물은 최종적으로 生活下水 또는 産業廢水의 형태로 하천으로 배출되어 물 循環의 다음 過程으로 移行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총배출량은 22,070,000m³/일로서 生活下水 66%, 산업폐수 33%, 畜産廢水 기타가 1% 정도이고 이것을 汚染負荷量으로 환산해보면 총부하량이 5,661톤/일로서 生活下水 45%, 산업폐수 46%, 축산폐수 기타가 9% 정도로 산업폐수는 발생량보다는 오염부하량이 현저히 문제가 된다. 다행히도 산업폐수는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河川의 水質管理側面에서 보면 生活下水보다는 용이하여 처리에 투자만 하면 排出許容基準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生活下水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리율이 60%를 넘기가 쉽지 않고, 축산폐수 등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河川의 수질관리는 水處理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하천의 機能을 回復시켜가는 것과 調和를 이루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河川機能」이란 法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능과 水理學上의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河川工學上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코자 한다. 즉 河川에 관계되는 自然的, 社會的 背景, 行政需要에 대응하여 治水, 利水와 調和를 이루는 하천환경관리로서 새로운 「河川環境의 創造」에 의한 하천기능의 회복이다.

그런데, 環境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넓은 의미가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En-

vironment나 Circumstance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이 환경이라고 번역되지만, 전자는 自然의 환경, 후자는 人工的인 환경에 가까운ニュ앙스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구별은 엄밀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을 연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것은 아니지만, 수질오염·대기오염 등 우리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는 公害問題는 후진적인 환경문제로, 自然·生態문제는 선진 환경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추세임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河川기능의 회복은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河川觀, 바람직한 河川像이라고 하는 民族의 哲學이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종래의 관 주도로 전개되던 단순한 河川 淨化運動을 더욱 발전시켜, 하천에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이 자율적이고 선도적으로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토록 하여 1기관 1하천, 1학교 1하천, 1단체 1하천 등 국민운동으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1社 1河川 運動」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천환경실태 조사, 생태계 복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하천 살리기운동」으로 전환하여 하천기능 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水資源 專門家の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므로 이 운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장